

보고서  
달인되기 Step  
2

김미란\_학부대학 의사소통교육센터



# Contents

01	우리는 왜 보고서 쓰기에 실패할까	3
02	대학에서 보고서는 왜 쓰는 것일까	4
03	좋은 보고서를 쓰려면 주제부터 잘 정해야 한다	5
04	형식적인 개요를 버려라-개요를 잘 짜야 글의 틀이 잡힌다	11
	1) 개요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한다	
	2) 글의 논리적 흐름에 맞게 내용을 배열한다	
05	보고서 한 편을 써 보자	20
	1) 글의 제목 달기	
	2) 내용이 충실하게 논증하는 방법	
	3) 보고서 내용 만들기	
	4) 보고서 체제에 따라 글쓰기	
06	여러 번 다듬어야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32



## 우리는 왜 보고서 쓰기에 실패할까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글은 수업 과제로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그 종류는 독서 감상문에서 체험학습 보고서, 답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 학술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중 몇 가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써본 경험이 있다. 이와 달리 학술 보고서는 우리가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써보는 글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학술 보고서라는 낯선 글쓰기를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 지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힘들게 밟는다.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글을 써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서 쓰기에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학술 보고서를 쓸 때 우리는 '학술'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런 글은 전문적이면서도 난해하게 써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한마디로 잘 쓴 학술 보고서는 무엇보다 그럴듯하면서 어려운 글이어야 한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보고서 쓰기에 실패한다. 그럴듯하고 어려운 글을 쓰려고 하니 실력이 부족한 것 같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니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도전해야겠다는 의욕이 사라진다. 인터넷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이 이리저리 웹 탐색만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을 짜깁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당연히 좋은 글을 쓸 수가 없고 글 실력 역시 늘 리 없다. 결국은 글에 대한 무력감에 사로잡힌다.

그렇다면 보고서는 어려운 글이라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떨쳐내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 당장 컴퓨터를 끄고 보고서를 쓰는 올바른 방법부터 익히는 것이 지름길이다.

## Step

# 02

대학에서 보고서는 왜 쓰는 것일까

우리가 쓰는 보고서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가장 쓰기 곤란하다고 느끼는 것은 학술 보고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학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대학에서 학술 보고서를 쓰게 하는 것은 대학의 본질과 목표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동의하듯이 대학은 학문 탐구의 장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문의 기초를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고 유용한 지식을 생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지식 탐구의 주제인 학생들이 학문을 익히고 이를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킨다.

우리는 대학의 고유한 성격과 목표에 이의가 없다. 또한 보고서 쓰기 지식 탐구의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얻는 데 유용한 훈련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괴로울 뿐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고서 한 편을 거뜰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보고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식을 정교화하고 재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쓰게 될 학술 논문 역시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 Step

# 03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주제부터 잘 정해야 한다

보고서 쓰기는 스스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연습 과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 연습과정의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이 주제 정하기이다. 좋은 주제를 정해야 가치 있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만 주제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기 점검부터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는 보고서의 주제를 정할 때 어려움을 느끼곤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제를 정하는 데 별 어려움을 겪지 못했다면 좋은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제를 정할 때의 평소 습관부터 바꾸어야 한다.

**주제를 정하는 평소 습관을 점검하라.** 나는 주제를 정하기 위해 무턱대고 컴퓨터 화면부터 켜놓는가? 그리고 억지로 떠올린 주제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가 결국은 누구나 떠올리는 뻔한 주제를 선택하곤 하는가? 내가 만일 이런 학생이라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뜯는 것도 시간 낭비에 불과했을 뿐 좋은 주제를 잡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럴까? 주제를 탐색하는 방법과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주제란 가만히 앉아 오래 궁리하면 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머리와 팔 다리를 모두 움직여야’ 한다. 대체 이것은 무슨 말일까? 좋은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말의 뜻은 절로 이해된다.

좋은 주제란 결코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투적이지는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1. 상투적이지 않아 글의 주제로 다루는 의미가 있으면서 2. 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제가 좋은 주제이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다룰 만한 좋은 주제는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011

-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징
- 다문화 가정의 차별과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글쓰기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필자들은 위의 주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학술적인 글을 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첫 번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대학생들이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택하면 아무리 성실한 학생일지라도 아직 그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요약하거나 짜깁기한 보고서를 쓸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그것은 내 글이 아니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해 잘 모르면서 성실하지도 않은 학생들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제 모를 일반론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보고서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글 모두 상투적인 글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물론 성실한 학생들은 좋은 보고서를 쓰지는 못했어도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한 성과는 있겠지만 말이다.

이와 달리 두 번째 주제를 선택하면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하나. 첫 번째 주제보다 범위가 좁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주제에 접근하면서 능동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범위도 아직 넓은 편이다. 다음의 사례처럼 범위를 좀 더 좁히면 내가 주제를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글의 흐름을 잡아 글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그런지 살펴보자.

012

- 다문화 가정의 차별과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배타적 민족주의
-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강요되는 한국문화 수용과 배타적 민족주의

첫 번째 주제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가 더 구체적이다. 두 번째 주

제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받는 차별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 주제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 배우자가 받는 차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두 주제는 모두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반응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좁히는 것이 나만의 글을 쓰는 데 왜 중요할까?** 즉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담는 데 도움이 될까? 그것은 주제의 범위를 좁힐수록, 내가 글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제를 좁힐수록 나 스스로 글 쓸 내용을 선택하고 나의 의도에 따라 글의 구성을 잡아서 능동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의 차별과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제로 선택하면, 다문화 가정의 차별 양상과 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쉽다. 여기서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참고하는 것일 터이다. 그렇게 해서 쓴 글은 결국 짜깁기식 글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뜯어와 이어붙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글은 구성도 나열식이 되기 쉽다(이에 대해서는 구성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자.).

이와 달리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강요되는 한국문화 수용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제로 선택하면, 다양한 차별 양상 중에서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어 그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긴다. 또한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독창적인 생각, 주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글의 구성도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내 주제에 맞게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이에 대해서는 구성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자.). 그래서 글을 쓰는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주제를 가급적 좁혀야 하는 것이다.

**독창적인 글을 쓰고자 한다면 주제의 범위부터 최대한 좁혀라!**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주제 좁히기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의 3단계 브레인스토밍을 밟으면서 주제를 좁히는 훈련을 해 보자.

## | 주제 좁히기 훈련 |

주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강요되는 한국문화 수용과 배타적 민족주의' 라는 주제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주제는 제제와 그에 대한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제제: 결혼 이주 여성
- 관점: 그들에게 강요되는 한국문화 수용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입각해 있음

주제 좁히기 훈련을 위한 3단계 브레인스토밍은 바로 이 제제와 관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 1단계 브레인스토밍: 글의 제제 찾기

1단계 브레인스토밍의 목표는 다루는 대상인 제제를 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에 대한 보고서를 쓸 것을 과제로 받았다고 하자. 여기서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는 다루어야 하는 글의 대상이므로 제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는 범위가 너무 넓다. 제제의 폭을 좁히기 위한 1단계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해야 한다.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 사회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드러나는 다양한 양상을 생각해 보고 그중 글감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제로 선택한다. 쉽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배타적 민족주의를 검색어로 삼아서 공신력 있는 인터넷 신문들을 살펴보자.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관련된 책의 목차와 내용을 훑어보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다룬 만한 가치가 있는 제제를 찾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오래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팔 다리를 모두 움직여야 한다.'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독도, 교과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조선족, 귀화, 스포츠용병, 한일전

배타적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사례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사례를 제제로 선택한다. 관심이 있어야 끝까지 흥미를 유지하면서 글을 써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 중 '다문화 가정' 을 선택했다고 하자. 그런데 막상 '다문화 가정' 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니 이 제제 역시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제의 범위를 더욱 좁히는 작업에 착수하자.

### 2단계 브레인스토밍: 제제의 범위 좁히기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인권, 다문화 가정의 법적 권리, 다문화 가정의 2세 교육, 교사의 다문화가정 인식, 결혼 이주 여성과 한국 문화의 수용, 외모 차이

제제의 범위를 좁혀 보았더니 '다문화 가정' 과 관련된 세부 제제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중 '결혼 이주 여성과 한국 문화 수용' 을 주제로 선택하였다고 해보자. 이제 제제는 매우 좁혀졌다. 다음으로 할 작업은 이 제제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다.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나의 관점을 세워 두어야 글의 전체적인 방향이 명료해진다. 3단계 브레인스토밍은 제제에 대한 나의 관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3단계 브레인스토밍: 제제에 대한 내 관점 정하기

결혼 이주 여성과 한국 문화의 수용: 한국인과 결혼했으므로 출신 국가는 잊고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루빨리 한국인이 되어야 함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만큼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음

한국문화의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해당함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고 그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관점으로 확정한다.(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는 것은 내 관점을 선택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 관점으로 비판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도 요긴하다.) 여기서 나는 '한국문화의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해당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취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관점을 제재와 결합시키면 '결혼 이주 여성에게 한국 문화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해당함'이라는 주제가 완성된다.

이와 같이 주제는 **구체적인 글의 제재 + 그에 대한 나의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이 주제를 한 문장의 주제문으로 만들어 보면 주제가 가장 명확해진다. 나는 주제를 정리하여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에는 무관심한 채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라는 주제문을 만들 수 있다.

**주제문:**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에는 무관심한 채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를 통해 결혼 이주 여성과 더불어 살기 위해 우리 사회는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처럼 주제가 정해졌으면 **주제문을 써라**. 글의 방향이 더욱 명료해진다.

## Step 04

**형식적인 개요를 버려라-개요를 잘 짜야 글의 틀이 잡힌다**

주제와 주제문을 정했으면, 이제 개요를 만들 차례다. 개요 없이 글을 쓰는 습관은 가장 나쁜 것이다. 그런 습관이 있다면 먼저 이 습관부터 버리자. 그렇지 않으면 글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아 두서없는 글을 쓰거나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빠뜨리게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논점에서 자주 이탈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개요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개요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학생들이 많다. 실제로 글을 쓸 때 개요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글쓰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개요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밟아 보자.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개요를 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개요에 필요한 내용 준비하기
2. 준비한 내용을 글의 논리적 흐름에 맞게 배열하기

### 1. 개요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한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개요를 짠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성한 개요는 부실하기 마련이다. 개요를 작성하기 전에 내 글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해야 좋은 개요를 짤 수 있다.

#### • 개요에 필요한 내용 목록 만들기

무턱대고 주제에 대해 공부하는 것보다는 주제에 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구분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처럼 '주제에 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의 목록을 만든다.

주제에 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것

**• 자료 찾기**

알고 싶은 것이 정해졌는가? 이제 구체적인 개요를 짜기 위해 내가 가야 할 곳은 도서관이다. 우리 학교 학술정보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제에 맞는 검색어로 자료를 찾기 시작하라.

**검색어 예>>>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 여성, 정체성, 평등, 차별**

자료를 검색할 때 유의할 점은 자료가 주제의 성격에 맞는가이다. 같은 핵심어로 찾은 자료일지라도 자료의 주제와 서술 방향 등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료를 검색한 다음에는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만 따로 추려내야 한다.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찾을까?

단행본은 도서관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다. 다음은 단행본을 검색해서 주제에 맞게 추려낸 결과이다.

**<단행본>**  
 법무실무연구회 편,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 에스폼, 2010.  
 이성언·최유,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형하,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연구』, 이담Books, 2010.

**<학위논문>**  
 김보라, 「국제결혼 이민 실패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향미, 「문화의 차이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갈등과 적응 과정」,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전미숙,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정귀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학위논문을 검색하고 싶으면 학교 학술정보관 사이트에 있는 RISS를 이용한다. RISS는 학위논문과 소논문 파일들을 모아놓은 국내 최대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다음은 RISS에서 학위논문을 검색해서 주제에 맞게 추려낸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RISS와 DBPIA 또는 KISS에 들어가서 핵심어들로 소논문을 검색해 보자. DBPIA와 KISS는 연구자들이 쓴 소논문들을 제공하는 기관이다(DBPIA에는 일반 잡지의 글도 실려 있어서 글 제목과 발표 기관 이름을 보고 자료를 찾아야 실패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소논문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으로 쓴 최신의 글을 원할 때도 RISS나 DBPIA, KISS에서 검색한다. 다음은 검색해서 주제에 맞게 추려낸 결과이다.

### 〈소논문〉

김혜숙 외 3인,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사회 및 성격』 제25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2011.

남인숙 · 장혼성, 「다문화 시대의 사회윤리: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 이해」, 『사회이론』 제35권, 한국사회이론학회, 2009.

성현란,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 제17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2011.

신유경 · 장진경,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 사례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4권 제3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0.

안준희 · 조정희,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32권, 한국가족복지학회, 2011.

위인백,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1. 5.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자료들은 이 목록들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자료들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깊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인터넷을 뒤져서 쉽게 자료를 찾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라. 깊이 있는 글을 위해 내가 찾아갈 곳은 도서관(사이트)이다.** 그렇지만 처음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막막할 것이다. 먼저 자료를 검색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연습 삼아 학교 학술정보관 사이트와 RISS나 BBPIA, KISS에 몇 번 들어가 본다.

그런 다음 위의 자료 검색 사례에서처럼 학술정보관 사이트에서 내 주제를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수준의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자들이 쓴 소논문 등을 찾아서 글 쓸 준비를 한다. 이때 내 주제와 관련이 크지 않거나 막연한

각으로 자료를 검색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지 않은 소득을 얻게 되기도 한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제재를 다루는 방식과 경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RISS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핵심어로 삼아서 자료를 검색해 보면,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한국 사회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한 차별 등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그런 연구가 드물다는 것은 대체로 이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내가 제재로 선택해서 다룰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자료를 찾는 것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내 글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꼭 경험해 보도록 한다.

## 2. 글의 논리적 흐름에 맞게 내용을 배열한다

자료를 찾아서 내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간추렸으면 개요를 짤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자료를 찾아 새로 간추린 내용을 함께 모은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에는 무관심한 채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 결혼 이주 여성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과 지역 차별
- 이들의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
- 매체의 역할: 농촌에 적응한 이주 여성들의 미담 사례를 주로 보도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킴
- 결혼 이주 여성들의 배우자는 주로 농촌 청년들임
-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배우자의 학대

필요한 내용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개요가 되지는 않는다. 글의



논리적 흐름에 맞게 내용을 배열했을 때 비로소 개요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모아놓은 내용의 순서 바꾸기
2. 불필요한 내용 삭제하기
3. 더 필요한 내용 추가하기

다음은 위 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하고 순서를 재배치하여 유기적으로 배열한 사례이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에는 무관심한 채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

〈서론〉  
결혼 이주 여성의등장이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

〈본론1〉  
- 결혼 이주 여성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과 지역 차별  
- 이들의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

〈본론2〉  
- 결혼 이주 여성들의 배우자는 주로 농촌 청년들임  
- 농촌의 보수성과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

〈본론3〉  
- 매체의 역할: 농촌에 적응한 이주 여성들의 미담 사례를 주로 보도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킴

〈결론〉  
한국 사회의 차별 의식 & 농촌 지역의 보수성 & 매체의 미담 만들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자면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순서를 재배치하고 주제에 맞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필요한 내용을 첨가했다.

삭제한 내용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배우자의 학대
첨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론〉 결혼 이주 여성의등장이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li> <li>- 〈결론〉 한국 사회의 차별 의식 &amp; 농촌 지역의 보수성 &amp; 매체의 미담 만들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심화되고 있음</li> </ul>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에는 무관심한 채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라는 주제문에 맞는 글의 개요를 짤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글의 논리적 흐름이다.

그런데 글의 논리적 흐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위 사례에서는 주제문에 맞게 다음의 논리적 흐름을 택하였다.

1.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들의 출신 국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우월감에 기초한 것임을 분석한다.
2. 그 우월감과 한국 농촌의 보수성이 결합하여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양상을 설명한다.
3. 매체는 이 배타적 민족주의를 미담 기사로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1, 2, 3의 세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메타니즘을 설명한다.

즉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를 ‘분석’ 하고 그 측면들이 상호 작용하는 메카니즘을 ‘설명’ 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글의 흐름을 택한 것이다. 글의 흐름에서 보이듯이, 1, 2, 3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즉 1을 바탕으로 2가 분석, 설명되고 1과 2를 바탕으로 3이 분석,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이 있어야 나열식 구성을 피할 수 있다.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강요되는 한국문화 수용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제로 선택한 위의 개요를 다음의 개요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차별과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제로 선택하면 어떤 개요가 나올까? 이를 위해 먼저 주제문부터 알아 보자. 주제문은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는 것은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한 것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개요는 아래처럼 되기 십상이다.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는 것은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한 것이다. ➔

- 〈서론〉  
다문화 가정의 차별과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 〈본론1〉  
다문화 가정의 정의
- 〈본론2〉  
다문화 가정의 차별 사례들
- 〈본론3〉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는 것은 한국인의 민족 차별의식에 의한 것임
- 〈결론〉  
본론의 요약과 강조

우리는 이와 같은 개요에 익숙하다. 지금까지 이런 식의 개요를 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요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만 담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주제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주제의 폭이 넓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본론의 내용이 상투적이기 쉽다. 가령 본론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정의하고 차별 양상과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한 뒤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쓰면 분석이 아닌 나열식 글이 되기 쉽다. 이것은 겉보기엔 단락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각 단락의 내적 연관이 없는 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주제 선정에서 이미 결정

된다. 글의 내적 논리는 주제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개요에서 내적 논리가 빈약한 것은 주제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물론 주제를 좁혔어도 그에 맞는 논리를 충분히 찾아내지 못하면 글이 빈약해진다.)

이와 달리 ‘결혼 이주 여성에게 강요되는 한국문화 수용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제로 선택하면 글이 구성이 상세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서 독창적으로 문제에 다가갈 수 있고, 제재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나의 시각도 생기게 된다.

# Step 05

## 보고서 한 편을 써 보자

위 사례처럼 주제에 맞는 흐름이 있는 개요가 준비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자. 초고를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글의 제목을 다는 일과 내용이 충실하게 논증하는 일이다.

### 1. 글의 제목 달기

제목은 글의 얼굴이다. 독자는 제목을 보고 주제와 흐름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글을 쓸 때 제목을 달지 않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다. 글에 제목이 없으면 독자는 글을 읽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인상적인 제목이 달려 있는 글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제목은 글을 쓰기 전에 다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미처 좋은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가제목이라도 달아 둔다. 글의 주제와 방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든 글을 마무리 지은 후에든 좀 더 적합한 제목이 생각나면 제목을 바로 바꾸어준다.

앞의 주제와 개요에 맞는 제목은 '결혼 이주 여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방식과 배타적 민족주의' 정도가 될 것이다.

### 2. 내용이 충실하게 논증하는 방법

보고서는 학술 논문의 격식과 내용을 어느 정도 갖춘 글이다. 따라서 보고서를 쓸 때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대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충분하게 제공하면서 논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설명' 과 '논증' 이 바로 주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도구들이다.

설명하는 방법에는 정의하기, 예시 들기, 비교 · 대조하기, 부연 설명하기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기) 등이 있다.

논증을 위한 논거 제시 방법에는 실증하기, 예증하기, 비교 · 대조하기, 기호 분석하기, 권위에 근거하기 등이 있다. 단 논증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 옳음을 입증하는 추론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여기서는 논증에 필요한 논거 제시 방법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 · 실증하기

실증은 사실 증거에 기반하여 주장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실증은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실증하는 방법을 살펴 보자.

#### (사례)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결혼관이 바뀌어가고 있다.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들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도에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전체 가구의 12.7% 정도였는데 2010년 인구조사 결과 약 20%에 이르렀다. 이와 맞맞추어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기존의 결혼관을 점점 희석되고 있으나 이 결혼관이 퍼지는 속도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기존의 결혼관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이 많다. 최인철의 '대한민국 2030 미혼남녀 결혼 인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의 소득 기대치는 연 4348만 원, 여성은 3161만 원으로 남성의 소득 기대치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학력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골드미스의 '능력' 은 결혼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력이 높은 30대 남성들의 55%가 배우자의 성격과 외모를 가장 중시한다고 응답하였고, 경제력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7%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이들은 고학력 30대 여성의 경제력의 수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경제력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24%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여성들이 자신보다 배우자의 경제력이 더 낫기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골드미스들은 경제력이 있는 남성에게나 없는 남성에게나 부담이 된다. (학생 글)

## • 예증하기

예증은 자신의 주장을 사례를 들어 증명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통계 수치를 통해 주장을 입증하는 실증과 달리 보편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예증하는 방법을 살펴 보자.

### <사례>

4월혁명기에 “중·고등학교학생 및 대학생 「테모」가질서정연”했다는 점은 언론에서도 수시로 강조하였지만,<sup>1)</sup> 학생들 스스로도 시위의 와중에 질서를 의식했다는 진술을 과도할 정도로 자주 하였다. 언론과 지식인들은 유독 강조된 이들의 질서 의식을 상찬할 만한 청년 세대의 민주주의적인 태도라고 평가해주었다. 특히 이승만의 하야 성명 이후 치안 유지와 거리 청소에 나선 행위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학생들의 새로운 건설 「테모」라고 고평 받았다.<sup>2)</sup> 이것은 당시에 자유민주주의가 질서 의식으로 표상되기도 하였음을 예증하는 것이다.

1) 「대전서등파과 데모연승불량배들」, 『동아일보』, 1960. 4. 28, 3면.

2) 「전국의질서점치회복」, 『동아일보』, 1960. 4. 28, 3면

## • 비교·대조하기

비교는 둘 사이의 공통점을, 대조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주장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대조하는 방법을 살펴 보자.

### <사례>

전쟁 중의 고향은 이처럼 판잣집과 바다의 표상을 중심으로 의미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의 고향-바다-자기 세계’는 의미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바다 표상은 「생명연습」에서 두 가지 대립적인 측면으로 분할되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는 나와 누나의 바다이며 다른 하나는 형의 바다이다. 비밀왕국에 거주하는 나와 누나의 바다와 자기 세계에 갇힌 형의 바다는 매우 이질적이다. 가령 나와 누나는 비밀 왕국에서 “금속처럼 차게 빛나는 해면을 바라보며 한참씩 서 있곤 했”고 “그럴 때야 비로소 나는 어린 가슴에 찾아오는 평안을 느”킨다.

하지만, 형은 “하다못해 유행가 가수라도 되겠다고 새벽과 저녁으로 바닷가를 헤매며 소리를 지르”다가 “폐가 나빠져서 중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고 마침내는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죽”기에 이른다. 전자가 인간과 자연이 통합되는 공간으로서의 바다라면, 후자는 개별자들이 자기를 찾아 헤매는 장소로서의 바다인 셈이다.

## • 기호 분석하기

문화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 체계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기호로 간주한다. 경험, 관찰, 통찰, 직관을 모두 동원해서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텍스트 분석과 공간 분석의 사례이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분석이 무엇인지 감을 잡아 보자.

### <사례1> : 소설 텍스트 · 바람 · 분석

중국 작가들과 달리 안수길에게도 만주는 기후 풍토가 황폐한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그는 고향의 특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질적인 만주의 자연조차 만주 정착의 계기로 활용한다. 가령 「바람」(1943)에서 “천지를 뒤덮”는 “미친 바람”은 “봄이면 으레히 찾아오는 이 고향의 독특한 자연의 품위”에 해당한다. 이 바람은 마을의 길뿐만 아니라 철도까지 훑먼지로 뒤덮어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위력을 지녔다. 근대적 수송기관인 철도는 만주의 지리를 새로 구체하게 할 정도로 자연을 크게 변형시킨 대표적인 근대 문명에 해당한다. 이 철도는 만주의 대지를 가로질러 조선으로 이어짐으로써 이주 조선인들의 이동을 손쉽게 해 준다. 만주와 조선을 잇는 선로는 최단시간에 두 공간을 오고가게 하는 시공간 압축 능력을 과시한다. 그렇지만 일본 제국의 기획을 실현하는 수행적 공간인 철도는 농민의 삶을 버리고 탈둔(脫屯)하려는 두 젊은 남녀에게는 이용이 허락되지 않는다. “순이는 기주민의 딸 그러니까 제 이세였고 정남이는 작년 봄 전라도서 입식한 개척민의 아들이었다.” “흙의 처녀”인 순이는 “고향에서 이발소 직공으로 있었다”는 정남이의 “도회적인 매끈”함에 마음을 빼앗긴다. 게다가 “고향산 천의 냄새”를 풍기는 정남이는 말끝마다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난 아무래도 고향으로 도루 갈밖에 없”다고 하면서 순이의 탈둔을 부추긴다.

그는 “만주 그것도 거친 농촌에서 나서 거기서만 자란” 그녀에게 “고향산천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조선의 한 도시가 정남이의 고향일 것이므로 여기서 고향은 만주의 농촌과 대비되는 조선의 도시를 표상한다. 그녀는 “성실한 농군”인 장손이와의 혼담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 정남이와 기차를 타고 조선에 있는 고향으로 떠날 결심을 한다. 그런데 “미친 바람”이 도로와 철도를 모두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이 만주의 바람은 원시성과 이질성을 표상하기보다는 도로와 철도의 용도를 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바람으로 인하여 길을 잘 못들”어 철도를 타지 못한 청년이 “이제 헤치고 나갈 세계”는 “바람과 같이 모질고 앞에 꼭 차 있는 암흑과 같이 어두운” 세계이다.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농사를 경시한 데 있다. 이처럼 만주의 바람은 이질적인 만주자연의 일부이자, 도로와 철도를 모두 가려버리고 온통 흙으로 뒤덮음으로써 “암흑과 같이 어두운” 외부로 나가는 길을 차단하는 힘이다. 곧 제2의 고향에 정착하게 만드는 바람은 내부(농촌/만주)와 외부(도시/조선)를 가르는 장치에 다름 아니다. 이를 통해 만주에서의 농업의 가치가 권장되며 “진실한 농부”인 장손이의 가치가 재확인된다.

**〈사례2〉 : 카페베네의 공간 분석**

카페베네의 매장에는 넓고 네모반듯한 테이블과 한 사람이 앉아도 공간이 남는 큰 의자가 놓여 있다. 다른 카페들의 동그란 테이블과는 달리 이곳의 테이블은 책상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테이블의 넓은 면적은 책을 펴놓고 공부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의자에는 쿠션이 놓여 있어서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 공부나 회의를 하며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특히 카페베네는 이른바 ‘코피스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위해 편의 시설을 강화했다. 매장에 컴퓨터를 비치하고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 좌석에 콘센트를 설치했다. 또한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개인적 공간이 그만큼 넓다. 각 공간의 구분이 확실하여 다른 이들의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도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는 혼자서 작업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빈 구석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인다. 실제로도 카페베네에는 다른 커피 전문점보다 혼자 앉아 일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처럼 카페베네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공간 분할을 통해 만족시켰다. (학생 글)

**• 권위에 근거하기**

우리는 주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에 의존하면서 글을 써나가야 할 때가 많이 있다. 2차 자료를 인용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잘못하면 인용 위주의 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용 위주의 글은 내 글이 아닌 짜깁기 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례1〉**

4월혁명 당시 의례의 수행자들이 기존의 문화 체계에서 도입해 온 것은 무엇보다 국민 형성 및 통합을 위한 문화적 기초로 국가가 제정하고 성화(聖化)한 다양한 민족적, 국가적 상징물들이었다. 국가 수립 직후부터 국가권력은 태극기를 강조하면서 국기에 대한 공경의례를 제정하고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였으며, “개식→(주악)→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봉창→선열에 대한 묵념→본행사→만세 삼창→(주악)→폐회”의 순서로 이른바 ‘국민의례’를 정착시켰다.<sup>1)</sup> 또한 학도호국단이 주도한 학생 관계 행사의 형식 역시 “국기 게양, 애국가 제창, 개회사, 켈기사, 시가행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행사에 수시로 동원된 학생들은 관계 행사 자체에는 설사 비판적이었을지라도 그 방식에는 매우 익숙했을 것이다. 따라서 4월혁명의 저항 의례는 국민의례와 학도호국단의 행사 형식 등을 충실하게 모방했다고 할 법하다.

1)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 현대사의 재인식—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224~225쪽.

**〈사례2〉**

여기서 민족적 긴장과 충돌이 노골화되기 시작한 1920년대의 만주를 다루면서, 조선과 중국, 일본간의 관계와 갈등을 서사에 노출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작가의 인식적 한계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중국인(특히 중국인 지주)과 민족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저항의 대상으로는 (비록 우회적이긴 하나) 일본을 지적하는 서사적 모순은 작가에게는 민족주의적인 반일 감정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투쟁의 목표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편적인 제도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만주의 영토 귀속 문제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항일투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식민지 상황에서 작가가 행한 자기 검열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서사 전개는 당시 만주가 중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공간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누락시킨다. 그 시기 만주는 중국의 영토였으며, 국가 통합과 국권 회수를 위해 중국은 일본을 만주에서 배제하려고 하였고, 일본은 만주를 특수지역으로 간주해 중국 본토에서 분리하고 나아가 그곳에 대한 배타적 권익을 누리려 하였던 상황이었던 것이다.<sup>1)</sup>

1) 앙드레 슈미드,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옮김, 휴머니스트, 2007, 82-83쪽.

Tip 1

인용 위주의 글을 피하는 방법은?

2차 자료만 참고해서 쓴 보고서는 인용 위주의 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다면 2차 자료란 무엇일까?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된다. 1차 자료는 다루고자 하는 원자료를 말한다. 신문·잡지의 기사, 수기,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1차 자료는 분석과 설명의 대상이 된다.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한 자료들을 말한다. 연구한 내용을 담은 단행본, 학위논문, 소논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통해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차이를 알아 보자.

• 1차 자료

- 1) 『차례상·세배 축척...한국새댁 다됐죠』 ‘베트남대’ 진성희(짠띠짱)씨의 행복 한 살맞이, 『데일리 노컷뉴스』, 2012. 1. 20.
- 2) 『〈다문화 코리아〉 元年』 피부색·언어벽 ‘난타’... 신명나는 한국인으로, 『문화일보』, 사회 28면, 2012. 1. 5.(목)
- 3) 『이주여성 이혼, 4년새 두 배... 가정·사회·직장에서 삼중고』, 『조선일보』 사회 A8면, 2012. 1. 11.(수).
- 4) 『결혼이주여성에 모국어 책 대출 인기』, 『경향신문』 사회면 21면, 2011. 11. 15.(화).
- 5) 『“이주여성 ‘한국 머느리 만들기’ 보다 인권 주제로 봐야죠”』, 『경향신문』 사회 21면, 2011. 11. 27.(일)
- 6)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국제결혼, 2010. (통계청(www.nso.go.kr.), 2012. 1. 20.)

• 2차 자료

- 1) 정천석,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가』, 한국학술정보, 2009.
- 2) 전수연, 「국내 일간지의 ‘다문화가정’ 담론 분석 :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 정연구 외 3인,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언론학보』 제55권 제2호, 한국언론학회, 2011.

이중 2차 자료만 인용하면서 글을 쓰는 것을 피하라. 즉 1차 자료를 찾아 그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용 위주의 글이 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

3. 보고서 내용 만들기

우리는 앞에서 구체적인 개요를 짜기 위해 학술정보관에서 자료를 찾아 공부했다. 이 자료는 보고서의 내용을 준비할 때에도 활용한다. 자료는 내 주제가 다룰 가치가 있으며 타당한지 확인하고, 주제를 심화시켜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

• 올바른 방법으로 자료 활용하기

자료를 참고하면서 연구 과정을 거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칫 다가가는 인용 위주의 글이 되어 표절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인용이 많은 글은 내 글이 아니다.** 인용은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용 위주의 글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중요한 것은 주제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참고할 자료들을 읽되, 그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자료의 내용이 타당한지, 분석이 옳은지 등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 나와는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된 자료를 읽는 것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자료는 내 것이 된다. 그렇다고 이것이 인용 표시 없이 남의 글을 내 글처럼 끌어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인용 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절이 되므로 반드시 주를 달아서 글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다만 기억할 점은 자료는 내 생각을 보완하거나 확장하기 존재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대신해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인용하는 자료가 글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그에 덧붙여지는 식으로 쓰는 글은 '나의 글' 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Tip 2

어떤 인용이 불성실한 인용일까 - 재인용을 피하라!

참고 자료를 읽다 보면 그 자료를 쓴 저자가 다른 사람의 책이나 논문을 인용한 대목이 나온다. 그것은 참고 자료의 저자가 글을 쓰기 위해 공부한 흔적이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자신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내용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중앙학술정보관으로 들어가 자료를 검색한다. 단행본이면 대출하고, 학위논문이거나 소논문이면 RISS나 DBPIA, KISS에서 검색해서 직접 읽어 본다. 꼼꼼히 읽고 내 글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면서 인용해야 제대로 된 인용으로 인정받는다.

아무리 찾아도 그 자료를 국내에서 찾을 수 없거나 자신이 모르는 외국어로 쓰여 있어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인용한다.

Rachmühl, Françoise, *Le Horla et autres contes fantastiques de Guy de Maupassant : analyse critique*, Paris: Hatier, p.41.(최주희, 「모파상 환상소설에 나타난 서사기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0쪽에서 재인용.)

• 자료 추가하기

글을 써 나가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때 바로 자료를 찾아서 보충한다. 예컨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느끼는 갈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학력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하자. 또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반드시 민족주의

와 충돌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자. 자료를 탐색하고 추적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자료1) 박인영,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인식과 갈등」,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자료2) 김비환, 「다문화민주주의?」, 『다문화사회연구』제4권 제1호, 다문화사회연구학회, 2011.

자료3) 박용희, 「민족사의 논리와 다민족, 다문화의 현실」, 『동학연구』제26집, 한국동학학회, 2009. 3.

자료1)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학력과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갈등의 차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자료2)와 자료3)은 민족주의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느낀 의문을 해결하면서 글을 써야 깊이가 생긴다.

Tip 3

보고서를 쓸 때마다 느끼는 몇 가지 궁금한 점들

- 보고서에는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 감정이 드러나는 글을 쓰지 않기 위해 의문문과 감탄문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 인용하려는 글의 저자를 보고서의 본문에 밝히고 싶을 때에는 OOO 선생님, OOO 교수님 등의 직위 표현을 하지 않고 성과 이름만 쓴다.

4. 보고서 체제에 따라 글쓰기

본격적인 논문을 쓰기 위한 훈련에 해당하는 보고서는 논문 형식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표지와 목차, 본문과 참고 문헌의 체제를 갖춘다. 이중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 • 표지

보고서의 표지에는 제목, 수강 과목명, 담당 교수자 이름, 제출일, 소속학과명(소속 학부/계열명), 제출자 이름 등을 써 넣는다.

##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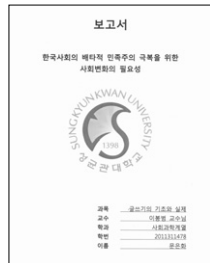
목차는 글의 구성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독자는 제목뿐만 아니라 목차를 보고 글의 전개를 짐작하고 읽을 만한 글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반드시 목차를 써야 한다. 목차는 대체로 보고서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위치한다.

## •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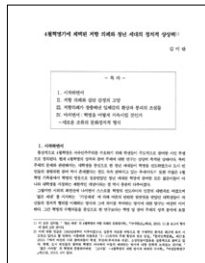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보고서의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관찰 보고서와 같이 설명이 중심이 될 때에는 도입, 전개, 마무리의 3단 구성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본문 구성 방식은 아니다. 다루는 글의 특성에 따라 기(起), 승(承), 전(轉), 결(結)의 4단 구성도 간혹 쓰인다. 3단 구성의 분량은 서론 10~15%, 본론 70~80%, 결론 10~15%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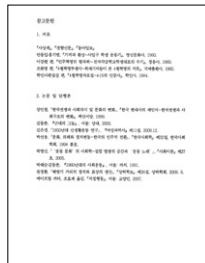
보고서의 본문을 완성했다면 글을 쓰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의 서지사항을 밝혀준다. 참고문헌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서의 제일 뒤에 첨부한다.



보고서 표지 예시



목차 예시



참고문헌 예시

### Tip 4

#### 서론 쓰기

서론을 쓰기를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서론을 쓰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신의 글에 알맞은 서론 쓰기 방법을 찾아보자.

- 사회적인 관심사나 시사적인 사실 제시하기
- 명언이나 경구 활용하기
- 다루는 대상에 대해 정의하기
- 첫문장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의 심각성 드러내기
- 일반적으로 시작하기
- 비교·대조하면서 시작하기
- 독자의 관심을 끄는 질문으로 시작하기

#### 결론 쓰기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결론 쓰기는 본론을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결론 쓰기 방식은 아니다. 본론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결론을 선택해 보자.

- 대안 제시하기
- 문제가 되는 상황 강조하기
- 질문하면서 결론 끌어내기
- 본론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 끌어내기
- 명언이나 경구를 인용하거나, 속담을 활용해서 결론 시작하기



# Step 06

## 여러 번 다듬어야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처음부터 완벽한 글은 없다. 다만 초고를 여러 번 다듬으면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글을 수정하는 일은 새로운 글을 쓰는 것보다 번거롭고 피로하다.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도 수정을 거쳐 글이 나아졌을 때의 성취감은 아주 크다.

그런데 초고는 언제 수정하면 좋을까? 초고를 쓰자마자 수정에 들어가기 보다는 동료나 교수자의 조언을 듣고 글을 보완할 자료를 찾아 읽은 후에 수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정을 하기 전에 점검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래의 점검표는 자신의 글을 직접 점검할 때나 동료와 상호 점검할 때, 교수자의 점검을 받을 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수정 사항을 정리했으면, 이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좋은 글이 나온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고 수정을 하지 않은 초고를 보고서 과제로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무리 유능한 저자라도 몇 번이고 글을 고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렇게 하려면 글을 쓰기 전에 글쓰기 계획표를 잘 때부터 수정할 시간까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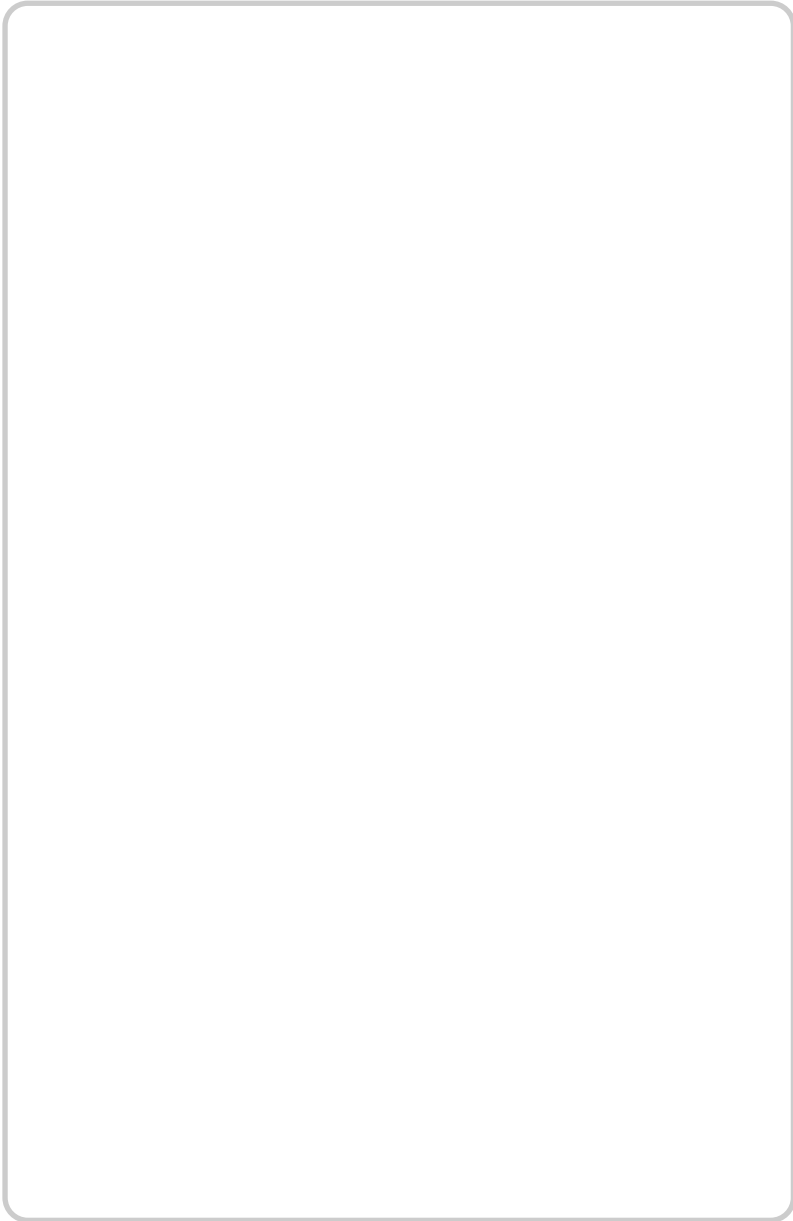
김경환, 김미란, 김성수, 『창의적 사고 소통의 글쓰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탁석산, 『보고서는 권력관계다』, 김영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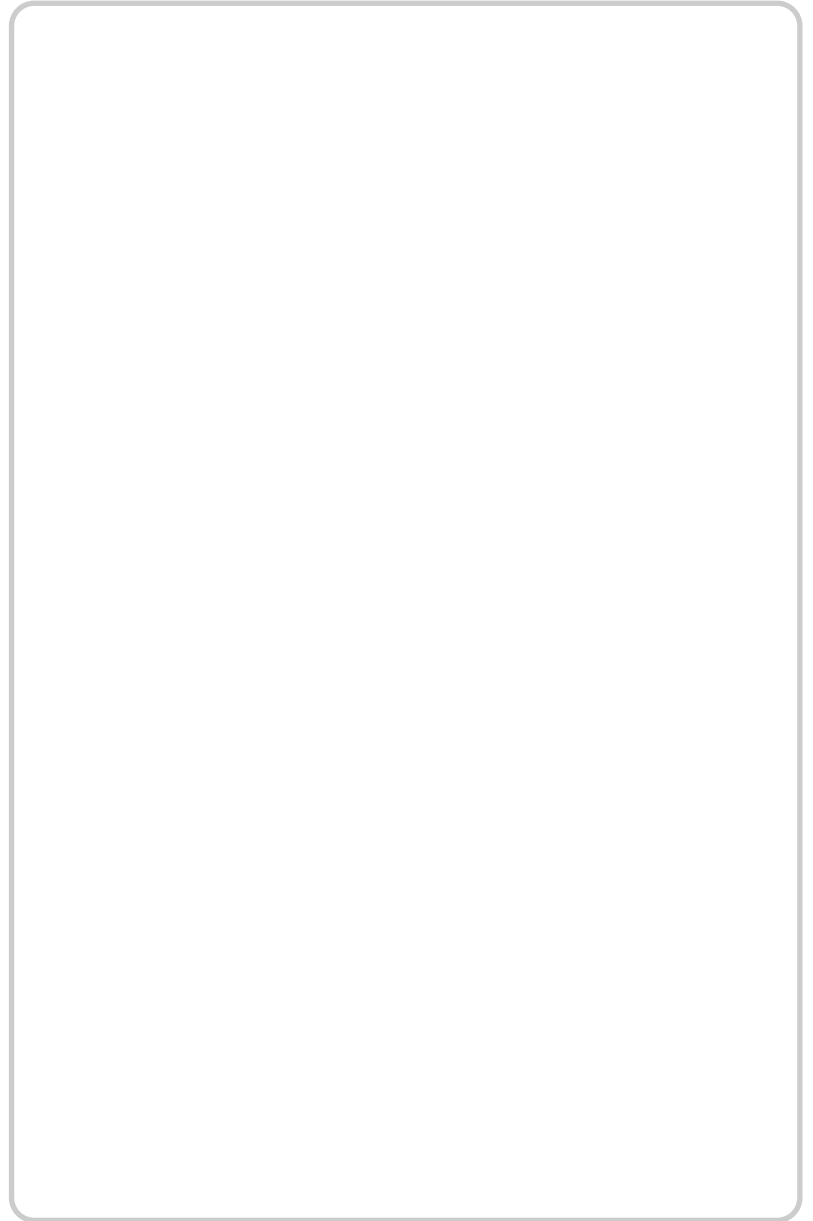
Richard Fulkerson, *Teaching the Argument in Writing*,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96.

점검	항목점검	내용평가 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인가.</li> <li>· 주제가 글에 분명하게 드러나는가.</li> <li>· 주제가 일관성이 있는가.</li> </ul>	
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한가.</li> <li>· 불필요한 근거는 없는가.</li> <li>· 내용이 반복되어서 통합해야 하는 곳은 없는가.</li> <li>· 상식이나 인용 자료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독창적인 혹은 주체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입증하기 노력하고 있는가.</li> <li>· 다루는 대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성급하게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가.</li> <li>· 타당성이 큰 설명과 분석인가, 타당성이 떨어지는 설명과 분석인가.</li> <li>· 이것저것 나열만 하여 설명과 분석이 산만하고 깊이가 없는가, 하나라도 심도 깊게 다루어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는가.</li> <li>· 상식적인 수준의 설명과 분석을 피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더 찾아보아야 하는가.</li> <li>· 다양한 참고문헌 중 어느 분야의 참고문헌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li> </ul>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는 체계적으로 잡혔는가.</li> <li>· 서론: 서론의 역할에 충실한가.</li> <li>· 본론: 각 단락의 구성(중심 문장 + 뒷받침 문장)은 논리적인가.</li> <li>· 결론: 결론의 역할에 충실한가.</li> </ul>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나 구절을 고쳐야 하는 대목은 없는가.</li> <li>· 비문(비문법적인 문장)은 없는가.</li> <li>· 현학적인 표현을 써서 전달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는가.</li> </ul>	

memo



memo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box is outlined in a thin grey line and occupies the left side of the page.